전주 예비군대대 봉동이전 반대

완주군 비대위 출범… 사회단체 등 2백여명 참가

지난 29일, 완주군 기관, 사회단체, 봉동읍 기관, 사회단체 등 2백여명은 봉동읍 주민센터에서 전주 예비군대대 완주군 봉동읍 이전 반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소병래 임시위원장 주관으로 송병주 공동상임위원장과 이헌철 봉동읍 이장협의회장 등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동위원장으로는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정완철 완주군애향운동본부 회장, 박재완 도의원, 송지용 도의원, 임석근 완주군 기독교 연합회장, 여태권 완주군친환경단체 대표, 하연호 전북연대 대표, 유희빈 전도의원, 소병래 전전북도의회 부의장 등 총10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전주예비군대대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위원장 12명과 완주군의회 의원 전체 의원과 완주군 기관 사회단체장, 완주군 전체 농협 조합장, 김덕연 완주군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각읍면 이장협의회장, 봉동읍 조합기 체육회장을 비롯한 봉동읍 각 마을 이장단, 오금자 봉동읍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각마을 부녀회장단, 조승현 회장과 권오석 사무국장 등을 대책위원으로 선출했으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식으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송병주·이헌철 상임 공동위원장과 소병래 임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까지 올라간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하고, "완주군 관내 모든 기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를 망라한 완주군민 전체가 똘똘뭉쳐 전주대대의 완주군 이전을 막아내자"는 결의의 찬 인사말을 했다.

전주 예비군대대 완주 봉동읍 이전 반대 출범식에서 소병래 임시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향후 완주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노조 등에도 이에 대한 설명과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군, '서로월장'서 부스 운영

서울시와 상생교류 사업

진안군은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로월장'에 참여하였다.

서로월장(Seoul-Local 月場)은 '서울과 로컬이 매월 만나는 장터'라는 의미로, 매달 첫째 주 금~월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는 상생교류 사업으로 지역자원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장터이다.

이번 장터에서 진안군은 부스 2동을 운영하였으며, 직거래사업단 부스에서는 홍삼제품과 수삼 등 진안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 전시를 통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진안군 홍보 부스에는 마이산을 비롯한 진안의 대표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마이산 돌탑 쌓기 체험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오는 10월 12일부터 5일간 개최하는 '2016 진안홍삼축제' 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배부하고, '당신이 홍삼축제의 주인공입니다.'라는 과녁 맞추기 체험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로월장 참여는 진안군의 로컬푸드, 축제, 관광, 홍보, 기획 등을 담당하는 부서 공직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장터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결과로 남한유일의 홍삼특구 진안고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로컬플러스

장수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장수군의회에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유기홍(가 선거구)의원 , 부의장에 김종문(나 선거구)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이희숙(비례대표)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용문(가 선거구)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교황선출방식으로 7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최다선의원인 오재만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선거를 진행했다.

유기홍 의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의원 서로 간 협의와 타협을 거친 계획성 있는 의정을 만들어 의회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종문 부의장도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변자로써의 역할은 물론 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동료 의원들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성숙된 의회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6차 산업화로 하나 된 무주 만들자"

군, 민선6기 2주년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은 민선 6기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1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무원 등 2백 여명이 참석해 지난 2년을 되짚어 보는 동영상 "함께 호흡한 두 번째 이야기, 동행"을 시청하고 새로운 2년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황정수 군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위해 힘든 여정을 함께 해주신 6백 여 공직자들과 2만 6천 여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살맛나는 민선 6기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반딧불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산골무주를 태권도 성지로 키워낸 저력으로 무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보자"고 말했다.

이어 "6차 산업화로 하나 된 무주를 만들고자 한다"며 향후 2년에 대한 포부를 밝힌 황 군수는 "지금 말하는 6차 산업은 기존의 자원에 사회·문화적 활동을 가미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무주만의 산악형 6차 산업을 완성하는데 주력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말난장 확대와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 △마을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및 야시장 활성화, △농·식품 생산과 가공, 유통에 문화와 예술, 산림자원을 연계한 생태, 지질, 마을관광 등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기념식 참석에 앞서 충혼탑을 참배했으며, 기념식에서는 문화관광과 오상희 관광개발담당이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딸기연구회 세미나 완주서 열려

우량묘 생산기술·ICT 농업 주제로 토론

새콤달콤한 맛과 향긋한 향으로 전국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명품딸기 주산지인 완주군에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일 완주군문예회관 대강당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딸기 연구회원들과 딸기 생산농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한국딸기연구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딸기의 우량묘 생산 기술과 ICT농업을 주제로 딸기의 안정적 생산과 병해충방제, 육묘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딸기를 생산 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 처방이나 토론 이뤄졌으며 우리나라 딸기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수출용 신품종인 '죽향'과 '싼타' 등 품종에 대한 특성과 재배상의 유의점 그리고 탄저병, 잿빛 곰팡이병 등 주요 병해충에 대한 방제 핵심기술, 딸기의 농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우량묘 생산을 위한 관리기술 등의 발표가 이어져 참석한 농업인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김중옥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상기후 등 변화하는 딸기 재배 환경과 베리류 등 대체 과일 등의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딸기 재배 농가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각종 새로운 기술을 이용 고품질 딸기를 생산 완주딸기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택시 소양면 운행 시작

완주군은 오늘부터 소양면에 완주택시를 분산 배치해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 1일 군에 따르면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 등은 택시밀집지역인데 반해 용진읍, 소양면, 구이면, 비봉면, 동상면에는 운행되는 택시가 없어 그동안 주민들이 이동상 많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권역별 택시 분산을 위해 완주군, 완주경찰서, 주민과 3각 협의를 통해 권역별 택시분산을 위해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소양면 택시 분산배치'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택시 정차대 위치는 소양파출소 앞으로 선정했으며, 봉동읍 소재 (유)상신교통법인택시 차량 일부를 소양에 배치하도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택시 정차대 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완주경찰서 및 소양파출소의 대승적 양보 덕분에 정차대를 설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애군민 어루만지며 민선6기 2주년 출발

무주군, 장애인과 간담회 가져

노약자 편의 엘리베이터 시승

무주군은 민선 6기 2주년의 첫 출발을 군청 청사에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시승식과 함께 장애인 간담회로 시작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김병하 지체장애인협회장, 주의식 시각장애인협회장, 조기상 농아인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군청 3층까지 이동하며 엘리베이터 설치 의미를 되새겼다.

무주군은 민선 6기 2주년의 첫 출발을 장애인과의 간담회로 시작했다.

무주군청 엘리베이터는 총 사업비 1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완공한 것으로, 군청 2~3층을 방문하는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의 방문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경사가 심하고 좁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았던 군청 입구를 개선했으며, 회의나 간담회 참석 등으로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3층 대회의실 구간의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했다.

또 예체문화관 후문 계단을 보완하는 공사를 추진해 장애인들의 원활한 통행을 도울 방침이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편해질 시설로 인해 여러분의 방문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의 의견 또한 군정에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좁혀진 마음의 거리만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도 한 층 더 가까워졌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장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장애 군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관련 사업에 총 4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진행사업은 장애인생활안전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톤당 1500원에서 6000원으로

진안군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1일부터 인상해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00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어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지난 6월 13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는 톤당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톤당 1,5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지 분석결과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공공처리시설 운영 적자증가로 인한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까지 처리수수료 현실화율 50%이상 인상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사용료를 톤당 최소금액 6000원 이상으로 하고 매년 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반도록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며 "처리 비용 절감에 힘쓰면서 공공처리 시설 사용료는 향후 단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진안군은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6월 분석실 운영 전문가를 채용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고향 할머니장터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채취하여 잔류농약 245개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진안 로컬푸드 매장과 고향 할머니장터에서 판매중인 농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컬푸드는 2주 1회, 할머니장터는 진안장날(4, 9일자)에 10 ~ 20개 품목의 시료를 수거하여 농약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시장을 즐겨 찾는다는 전주에서 온 한 주부는 "고향 할머니장터 농산물이 안전성까지 더해져 편안한 마음으로 오일장을 자주 찾는다"며 "이와함께 친정엄마의 정까지 흠뻑 담아 갈 수 있어 더욱 좋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산서 특수시책 발굴 보고회

장수군 산서면(면장 배형근)은 지난달 30일 면사무소 2층에서 산서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 시책 발굴 자체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배형근 산서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은 산서 호국기념공원 조성, 산서양파 특화작목 확대, 귀농귀촌지원 등 문화, 농업, 복지향상 분야에 대한 7건의 시책을 발굴하고 직원간의 화합과 행정서비스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산서면은 기관·단체와의 협의와 견학 등을 통해 시책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연말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형근 면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추진상황 1차 보고회

진안군은 진안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일 추진상황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안홍삼축제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이산북부 마이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 6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문화관광 축제 진입을 목표로 프로그램마다 실·과·소 담당을 지정하여 계획수립부터 진행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을 첫 도입하였다.

16개부서 11개 읍면 담당자로 구성된 50여명의 진안홍삼축제 실무 추진단(단장 이근상 부군수)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교통대책, 통신장비, 홍보, 의료반 등 축제 전범위에 걸쳐 추진단 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보고회는 실무추진단이 맡은 프로그램의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을 보고하고 축제 총괄부서와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진안군은 정기적인 보고회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 교류 후 이를 반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며 추진상황 보고회는 매월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근상 실무추진단장은 "실무추진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진안홍삼축제가 전년도보다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나고 문화관광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축산농가 워크숍 가져

장수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관내 한우농가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선진 축산 강국과의 FTA 협상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장수군 축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엔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 박연수 박사의 '한우산업 동향과 현장활용 기술 소개'와 이창우 박사의 '종축 선발 및 유전자원보급' 특강에 이어 '장수축산농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달 1일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한우농가의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